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합의

- 전략경제협력 특사(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활동과 연계, 산업통상부-캐나다 천연자원부 「한-캐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포럼」 개최(6.2(화) 캐 오타와)
-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 팀 호지슨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은 양국 자원협력을 구매-공급 구조에서 기술·자본 통합 공급망 파트너십으로 확장 합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6월 2일(화) 캐나다 오타와에서 공동으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은 KOTRA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6.1(월) ~ 2(화)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대통령비서실장) 활동과 연계하여 개최된 것으로 양국의 자원 관련 정부, 협·단체, 기업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 심화 등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안정되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양국은 자원 협력을 구매-공급 구조에서, 기술과 자본의 통합 공급망 파트너십으로의 확장해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 강훈식 특사 - 팀 호지슨 장관 사전 면담 >

먼저, 강훈식 전략경제협력특사는 팀 호지슨(Tim Hodgson)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과 사전 면담을 갖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자원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유·LNG·핵심광물 등 자원 쏠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면담에서 논의된 협력 방향은 포럼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 포럼 주요 논의 결과 >

이번 포럼은 캐나다 정부, 주요 주정부(앨버타주, 퀘벡주,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의 자원 관련 투자·정책 환경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협력 방향 및 현장의 수요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은 원유, LNG, 핵심광물 쏠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유 분야에서 한국은 캐나다産 원유 도입을 '25년 488만 배럴에서 '26년 최대 1,600만 배럴로 약 3.3배까지 확대하고, 향후 연간 최대 2,000만 배럴까지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캐나다의 3번째 원유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생산 원유의 90% 이상을 미국에 공급해 온 캐나다로서도 최대 원유 소비지역인 아시아로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양국은 이러한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LNG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5%로 참여해 연 70만톤을 도입 중인 LNG 캐나다 1단계 사업('25.9월~)을 기반으로 2단계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단계는 '26년 3분기 내 최종투자결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신규 「Ksi Lisims」 프로젝트(연 200만톤) 도입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은 매년 총 340만톤·641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캐나다産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의 캐나다산 LNG 수입 비중도 '25년 1.7%에서 '31년 3.0%로 확대될 전망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캐나다의 서부에서 선적된 LNG는 13일 만에 한국에 도착해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수요처인 한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캐나다는 호주·인도네시아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광물 수입국으로, 우리 기업

들은 리튬·희토류·니켈·동정광 등 총 90억 3천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캐나다 産 광물 구매 계획과 1억 3천만 캐나다 달러의 흑연 광산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이러한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토대로 기업 간 투자·구매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5.8일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핵심광물 공동비축 협력의 경우, 한국 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금년 말까지 공동비축 합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관 간 MOU 1건도 체결되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캐나다 지질조사소(GSC)는 「자연수소 공동연구 이행협정(IA)」를 체결하고, 자연상태에서 발생해 탄소배출이 없고, 생산 단가가 저렴한 차세대 자원인 자연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부와 KOTRA는 원유·LNG·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도입·투자 등 협력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246)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장선화 (044-203-5218)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박성배 (044-203-5216)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윤가영 (044-203-5258)